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25. Vol. 38, No. 4, 491-517
https://doi.org/10.24230/kjiop.v38i4.491-517

한국판 헛소리 빈도 척도(BSF) 타당화 연구: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 검증

강 민 성　　서 종 한†
영남대학교

헛소리는 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한 소통 행위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헛소리 빈도 척도(Bullshitting Frequency Scale; BSF)를 타당화하기 위해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한국판 BSF 요인 구조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판 BSF는 설득형 헛소리와 회피형 헛소리의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SF 개발 연구에서 탈락된 일부 문항이 포함되어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2에서는 성인 300명을 재표집하여 다분문항반응이론을 통해 개별 문항의 변별도와 심각도를 검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 1의 모형을 재검증하였으며, 관련 척도와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새로운 표본에서도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에서도 높은 변별도와 안정적인 서열적 특성이 나타났다. BSF는 거짓말 성향, 과대 주장, 사회적 바람직성, 정직-겸손성, 어두운 성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BSF를 타당화하여 헛소리의 문화적 차이를 탐색하였으며, 국내 헛소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헛소리, BSF, ESEM, 문항반응이론, GPCM

† 교신저자 : 서종한,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jonghansea@y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소비 또한 일상화되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주장들이 가짜 뉴스, 음모론, 여론 조작 등의 형태로 쉽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정보의 진실성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헛소리(bullshitting)[1)]'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철학자 Harry Frankfurt(1986)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개념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보다 자신의 의도나 목적 달성과 같은 개인적 동기에 집중하는 담화 행위를 의미한다. 헛소리는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짓말과 구별되는데, 거짓말이 진실을 알면서도 상대가 거짓을 믿도록 속이는 의도적인 행위인 반면, 헛소리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지 자신의 말이 미칠 효과나 인상 관리에만 초점을 두는 행위이기 때문이다(Frankfurt, 2005; Hart, Jones, Terrizzi, & Curtis, 2019).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전문 기술에 대해 물어보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진실을 말하는 경우, 지원자는 "아니요, 그 기술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 기술을 알기 때문에 그 기술도 빠르게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와 같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제 역량을 제시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지원자는 자신이 그 기술을 모른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네, 이전 직장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그러나 헛소리를 하는 경우, 지원자는 "아, 그 기술말씀이신가요. 저는 하이테크 기술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그 기술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패러다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이니까요."라고 그럴싸하게 답할 수 있다. 즉, 거짓말은 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인 반면, 헛소리는 진실 여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로 화자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헛소리의 개념은 Frankfurt(1986)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Mears(2002)는 헛소리를 자신이나 현실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면서도 그럴듯한 설명 또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전략으로 보았다. 이는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과장하고 포장하는 도구적이고 수행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Frankfurt(1986)의 헛소리 개념과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Cohen(2012)은 일부 헛소리꾼(bullshitter)들이 의미 없이 공허한 전문 용어에 의존하는 '모호하고 불명확한(unclarifiable unclarity)' 화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화법은 표면적으로는 심오해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청자를 혼란에 빠트린다. 이는 헛소리가 단지 담화의 진실성을 넘어 의미 전달의 명확성(lucidity)에도 무관심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회피형 헛소리(evasive bullshitting)'라는 개념도

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헛소리는 실속이 없고 미덥지 못한 말 또는 잠결이나 술김에 하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국립국어원, nd). 본 연구에서는 실속이 없고 미덥지 못한 말로써의 헛소리 정의를 따른다.

제시되었다(Carson, 2016). 회피형 헛소리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관련 없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말하는 것을 피하는 헛소리 방식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평판이 위협받는 사회적 상황에 교묘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헛소리는 도구적이고 수행적인 성격을 가지며, 진실성 및 명확성과는 상관없이 자아 개념(self-concept)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하거나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Mears(2002)의 주장처럼 헛소리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관찰된다. 정치인들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헛소리를 구사하며(Barnes, 1994; Gligorić, Feddes, & Doosje, 2022; Gibbons, 2024), 마케팅 분야에서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헛소리를 사용한다(Cohen, 2012; Hardcastle & Reisch, 2011; Spicer, 2013). 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관심이나 특정 이득을 얻기 위해 생성되는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 또한 헛소리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Pennycook & Rand, 2019). 이러한 헛소리 현상은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 장면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대 조직에서는 회의, 보고, 평가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인상 관리나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헛소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가치(value)', '품질(quality)', '시너지(synergy)'와 같은 단어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남발되며, 모호하고 공허한 의사소통을 유발하기도 한다(Spicer, 2013; Spicer, 2020; Watson, 2004).

이러한 헛소리는 개인의 동기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공고해진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동화, 아웃소싱의 영향으로 실제 노동의 필요성은 줄었지만 근무 시간은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의미 없는 일(bullshit jobs)'이 이러한 무의미한 담화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Paulsen, 2013). 실제로 대형 컨설팅 기업에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헛소리를 사용하거나, TQM(Total Quality Management)과 같은 경영 기법이 실질적인 효율성보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현상은 헛소리가 조직 내에서 묵인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장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Alvesson & Karreman, 2011; Meyer & Rowan, 1977; Zabrecki, 1998).

결론적으로 헛소리는 단순히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가진다. 또한, 헛소리 비대칭성(bullshit asymmetry)에 따라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헛소리를 반박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를 비판하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헛소리가 만연해질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증가한다(Brandolini, 2013; Hardcastle & Reisch, 2011; Petrocelli, 2018). 최근 연구에서 조직 내 헛소리가 직무 만족도를 저해한다고 나타난 것은 헛소리가 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Fallatah, 2023).

이러한 헛소리의 파급력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현상 속에서 헛소리의 발생 기제와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Littrell et al.(2021a)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헛소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헛소리 빈도 척도(Bullshitting Frequency Scale; 이하 BSF)를 개발하였다. BSF에서는 선

행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헛소리의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헛소리를 설득형 헛소리(persuasive bullshitting)와 회피형 헛소리(evasive bullshitting)로 구분하였다. 설득형 헛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실제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헛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설득형 헛소리 꾼들은 자신의 말이 표면적으로 인상적이거나 흥미롭게 들리도록 의도하며, 실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거나 꾸밈, 허세와 같은 수사적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거나 헛소리가 용인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더 빈번하게 헛소리를 사용한다(Petrocelli, 2018). 회피형 헛소리는 Carson(2016)의 개념과 같이 직접적인 답변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당혹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헛소리를 의미한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피형 헛소리는 관련 없는 진실을 언급하는 행동을 포함해 주로 돌려 말하거나,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제시된 기획안이 어떤지 물었을 때, 보기에는 별로라고 생각되더라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회피형 헛소리에 해당한다.

BSF는 높은 신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헛소리와 관련성을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이용해 헛소리가 인간의 심리 및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BSF로 측정한 설득형 헛소리는 인지 능력 및 분석적 사고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보고된 지적 능력에 대한 과신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Littrell et al., 2021a; Littrell et al., 2021b). 또한, 지능이나 마키아벨리즘 성향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남에 따라 헛소리의 발생 기제나 헛소리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lötner & Bergold, 2022; Turpin et al., 2021). 특히, 헛소리는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 흔히 관찰되어, 기업 허풍 수용성(Corporate Bullshit Receptivity)과 같은 조직 맥락에서의 도구 개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Ferreira et al., 2022; Littrell, 2024).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헛소리는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직원 이탈을 증가시키며, 기업을 잠재적인 재정적 및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판 향상, 자신감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Christensen et al., 2019; McCarthy et al., 2020). 이러한 연구들은 BSF가 헛소리라는 복합한 현상이 개인의 인지나 성격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헛소리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 거짓말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강현경, 박영신, 2014; 문용린, 이지혜, 김민강, 2008; 조은경, 2002). 또한, 헛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도구도 부재하여 이를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맥락에서 BSF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헛소리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를 통해 국내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BSF를 타당화하고,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원

척도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문항 전체를 이용해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구성타당도를 확인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독립된 표본을 통해 문항 수준에서의 기능을 평가하고, 연구 1에서 도출된 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재검증하며,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판 BSF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연구 1. EFA와 ESEM을 통한 한국판 BSF의 요인 구조 탐색 및 수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 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성별과 연령을 균등하게 할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배포되어 참가자는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45.26세(SD=14.79)이었다. 전체 참가자 중 남성 참가자는 150명(50%), 여성 참가자는 150명(50%)이었다. 연령별 참가자는 20대 60명(20%, 남성 31명, 여성 29명), 30대 59명(19.7%, 남성 29명, 여성 30명), 40대 61명(20.3%, 남성 31명, 여성 30명), 50대 60명(20%, 남성 30명, 여성 30명), 60대 이상 60명(20%, 남성 30명, 여성 30명)이었다.

측정도구

헛소리 빈도 척도(Bullshitting Frequency Scale; BSF)

BSF는 일반 성인의 일상적인 헛소리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Littrell et al.(2021a)이 개발한 척도이다. BSF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득형 헛소리(persuasive bullshitting; 8문항)와 회피형 헛소리(evasive bullshitting; 4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참가자들은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말을 과장하거나 꾸미곤 합니까?'라는 지시문에 따라 각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헛소리를 더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를 통해 BSF의 타당화를 허락받았으며,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 문항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BSF 개발 과정에 사용된 9개의 예비문항을 받아 총 21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Cronbach's α는 Littrell et al.(2021a)에서 설득형 헛소리가 .93, 회피형 헛소리가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 요인을 기준으로 각각 .91, .84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BSF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EFA의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으로는 원척도 개발 연구와 동일하게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Oblimin 회전을 적용하였다(Littrell et al., 2021a). Gorsuch(1983)의 요인분석을 위한 권장 기준에 따르면, 지표변수 수의 10배 이상의 표

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300명으로, 21개 지표변수의 10배를 초과하므로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측정치를 확인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EFA를 통해 국내 문화적 맥락에서도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문항이 해당 요인에 적절히 적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EFA에서 도출된 요인 구조는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을 통해 확인적으로 검증하였다. 회전 방법으로는 부분제약 목표회전(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부분제약 목표회전은 EFA 결과에서 교차 적재(cross-loading)와 같이 요인 구조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요인 부하 행렬을 이론적 가설에 따라 회전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지표 변수의 요인 계수를 0에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교차 적재를 최소화하고 이론적 가설에 기반한 보다 명확한 요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이 요인 계수를 0으로 제한하여 모든 문항의 교차 적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과는 달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실제 데이터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강민성, 서동기, 서종한, 2024). EFA와 ESEM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산출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Kline, 2016). 본 연구에서는 Vandenberg와 Lance(2000)의 기준에 따라 RMSEA가 .08 이하, CFI와 TLI가 .90 이상, SRMR이 .10 이하인 모형을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KMO 측정치 확인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에는 R 4.4.1을 활용하였고, EFA와 ESEM을 실시하기 위해 Mplus 8.3을 활용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가능성 검토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측정치는 .95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153) = 3406.061\,(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형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EFA)

요인 수 결정을 위한 스크리 도표와 평행분석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스크리 도표에서는 3요인부터 교유값이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평행분석 결과에서는 적절한 요인의 개수가 2개로 나타났다. 1요인부터 5요인까지의 탐색적 요인 모형을 비교한 결과, 요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에서 2요인 모형은 χ^2 = 497.618, RMSEA = .081, CFI = .919, TLI = .899, SRMR = .038로, CFI 및 SRMR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RMSEA와 TLI는 기준점(각 .08, .90)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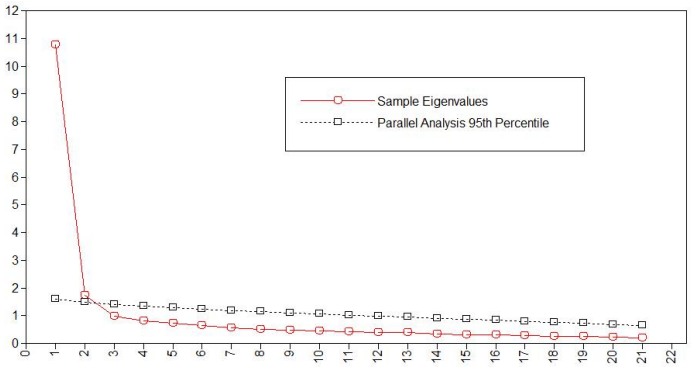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도표 및 평행분석 결과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모형별 모형 적합도

	chi-square	RMSEA	CFI	TLI	SRMR
1요인	914.828*	.113	.821	.801	.068
2요인	497.618*	.081	.919	.899	.038
3요인	369.351*	.070	.946	.924	.031
4요인	264.819*	.058	.967	.948	.025
5요인	207.010*	.052	.977	.959	.020

주. *p < .001.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다. 스크리 도표, 평행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를 모두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도 원척도와 동일한 2요인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고려된다. 또한, 2요인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요인 1이 원척도의 설득형 헛소리 문항으로만 구성되었고, 요인 2는 원척도의 회피형 헛소리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요인구조 해석에 용이하므로 2요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탐색적 요인분석과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간명성과 높은 신뢰도를 위해 문항이 한 요인에 .5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고 다른 요인과 .20 이상의 부하량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요인에 할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7개 문항(9번, 13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을 제외한 14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ESEM을 실시하였다. ESEM 결과, 14개 문항 모두 EFA 결과와 동일한 요인에 할당되었으며, RMSEA를 제외한 모든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었다(표 3). 최종 모형에서의 요인 간 상관은 .66으로 나타났다.

최종 요인 구조를 살펴보면, 요인 1에 포함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요인 부하량

		EFA		ESEM	
번호	원요인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1	설득형 헛소리(1-8번)	.780*	-.080	.806*	-.094
2		.774*	-.054	.791*	-.075
3		.784*	-.111	.772*	-.121
4		.831*	-.052	.848*	-.063
5		.789*	-.004	.812*	-.027
6		.593*	.191	.615*	.184
7		.597*	.176	.626*	.161
8		.659*	.178	.661*	.152
9	회피형 헛소리(9-12번)	.261	.476	-	-
10		.080	.637*	.110	.608*
11		-.052	.803*	-.029	.798*
12		-.042	.807*	-.020	.798*
13	제외 문항(13-21번)	.324	.452	-	-
14		-.005	.739*	.020	.737*
15		-.032	.826*	-.009	.830*
16		.031	.797*	.057	.758*
17		.362	.421	-	-
18		.501	.367	-	-
19		.471	.328	-	-
20		.366	.450	-	-
21		.407	.262	-	-

주.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이고 다른 요인과의 부하량 차이가 .20 이상인 값. 제외 문항(13-21번)은 Littrel et al.(2021a)에서 제외되었던 문항을 의미함.

표 3.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chi-square	RMSEA	CFI	TLI	SRMR
EFA	497.618*	.081	.919	.899	.038
ESEM	191.077*	.081	.949	.928	.031

*p < .001.

된 문항은 모두 원척도에서 ‘설득형 헛소리’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내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할 때(4번)’,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거나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을 때(5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1번)’ 등이 할당되었다. 이 문항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장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므로 요인 1을 ‘설득형 헛소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경우, 원척도에서 ‘회피형 헛소리’에 해당하는 10번, 11번, 12번 문항과 원척도에서 탈락하였던 14번, 15번, 16번 문항이 할당되었다. 이들은 각각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직접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14번)’, ‘원하지 않는 대화나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 말해야 할 때(15번)’, ‘내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비판이나 질문을 피하고 싶을 때(16번)’에 말을 과장하거나 꾸미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의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요인 2를 ‘회피형 헛소리’로 명명하였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BSF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Littrell et al.(2021a)의 BSF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21개의 문항을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와 평행 분석 결과에서 2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진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14개 문항의 2요인 구조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한국판 BSF는 ‘설득형 헛소리’와 ‘회피형 헛소리’의 2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BSF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 구조로 국내에서도 헛소리가 설득형과 회피형으로 구분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독일에서의 BSF 타당화 연구에서도 동일한 2요인 구조가 확인되어, BSF의 요인 구조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일관되게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lötner & Bergold, 2023). 한국판 BSF에서 ‘설득형 헛소리’ 요인은 원척도와 동일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회피형 헛소리’ 요인의 경우, 원척도의 동일 요인에 해당하는 9번 문항(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때)이 제외되었고, 원척도에서 제외된 14번, 15번, 16번 문항이 추가로 할당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낮은 요인 부하량과 높은 요인 간 상관을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반대로 원척도에서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인 9번 문항은 국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척도의 ‘회피형 헛소리’ 요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10번 문항(솔직한 대답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 때)이 한국판 BSF의 ‘회피형 헛소리’ 요인에서는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9번과 10번 문항은 모두 솔직한 응답이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때 헛소리를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헛소리의 타인 중심적인 동기를 나타낸다. 반면, 국내에서 회피형 헛소리 요인에 추가된 14번, 15번, 16번 문항은 대부분 자기중

심적인 동기를 나타내며, 자신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피하기 위한 헛소리 사용을 묻는다. Park et al.(2018)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기분을 중시하며, 타인의 기분과 평판을 보호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회피형 헛소리보다 더 의도적으로 타인의 기분과 평판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거짓말(prosocial lie)이 더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헛소리가 타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보다 자신의 불편을 피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강하여 나타난 결과로 고려된다.

연구 2. CFA를 통한 모형 재검증과 수렴 및 변별타당도 확인

서 론

연구 1에서는 한국판 BSF가 '설득형 헛소리'와 '회피형 헛소리'의 2요인 구조를 가지는 것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2의 목적은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2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재검증하고,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연구 1의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헛소리는 거짓말과 유사하지만 상이한 개념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변별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Frankfurt, 2005; Hart, Jones, Terrizzi, & Curtis, 2019; Littrell et al., 2021a). 또한, 헛소리는 자신의 주장을 과장하거나 꾸미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과장하는 경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특히 설득형 헛소리가 회피형 헛소리보다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rell et al., 2021a). 헛소리가 대인관계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며, 개인의 진실성, 공정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인 정직-겸손성(Honesty-Humility)과도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다(Cohen, 2012; Feddes, & Doosje, 2022; Petrocelli, 2018).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게 선행연구에서도 헛소리는 정직-겸손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Littrell et al., 2021a), 정직-겸손성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어두운 성격 특성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Blötner, & Bergold, 2022; Eckhert, 2023; Moshagen, Hilbig, & Zettler, 2018; Paulhus, & Klaiber, 202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BSF는 일상생활 속 거짓말 척도(LiES)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BSF, 특히 설득형 헛소리 요인은 과대 주장 척도(OCQ-30)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BSF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9)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4: BSF는 정직-겸손성(HEXACO-HH)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5: BSF는 어두운 성격 특성(SD4)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1과 동일하게 리서치 전문 업체의 패

널에 등록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과 연령이 균등하게 할당된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배포되어 참가자는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45.02세(SD=14.25)였으며, 전체 참가자 중 남성 참가자는 150명(50%), 여성 참가자는 150명(50%)이었다. 연령별 참가자는 20대 60명(20%, 남성 30명, 여성 30명), 30대 61명(20.3%, 남성 31명, 여성 30명), 40대 60명(20%, 남성 30명, 여성 30명), 50대 59명(19.7%, 남성 29명, 여성 30명), 60대 이상 60명(20%, 남성 30명, 여성 30명)이었다.

측정도구

헛소리 빈도 척도(Bullshitting Frequency Scale; BSF)

연구 1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BSF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설득형 헛소리 문항의 평균값인 BSFp와 회피형 헛소리 문항의 평균값인 BSFe, 전체 문항의 평균값인 전체 BSF 점수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원저자인 Littrell et al.(2021a)은 전체 BSF 점수보다 BSFp와 BSFe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헛소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BSF 점수도 함께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평정 기준은 연구 1과 동일하며, 14문항 BSF에 대한 Cronbach's α는 설득형 헛소리 .93, 회피형 헛소리 .89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속 거짓말 척도(Lying in Everyday Situations scale; LiES)

LiES는 Hart, Jones, Terrizzi & Curtis(2019)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거짓말에 참여하는 경향성과 동기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LiES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ying; 7문항)과 관계적 거짓말(relational lying; 7문항)의 두 하위요인을 측정한다. 반사회적 거짓말은 해롭거나 앙심을 품은 의도로 행해지는 거짓말을 의미하며 '복수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관계적 거짓말은 관계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의미하며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0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함(6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는 Hart et al.(2019)에서 .93,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5, .93으로 나타났다.

과대 주장 척도 30문항(Overclaiming Questionnaire-30; OCQ-30)

OCQ-30은 Paulhus, Harms, Bruce & Lysy(2003)에 의해 개발된 OCQ를 활용한 척도이다. OCQ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나 용어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여 자신의 지식을 과장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자연과학(physical science)'영역 15문항과 '책과 시(books and poems)' 영역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Littrell et al.(2021a)에서와 같이 과대 주장 경향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실존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hits)에 실존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false alarms)을 뺀 과대 주장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존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횟수도 함께 활용하였다. 각 문

항은 '전혀 들어본 적 없음(0점)'부터 '아주 잘 앎(6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는 Paulhus et al.(2003)에서 .7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ocial Desirability Scale-9; SDS-9)

SDS-9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용인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17; Stöber, 2001)를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5문항과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4문항으로 구분된다.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은 '나는 한 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은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에서 .72, 본 연구에서 .62로 나타났다.

HEXACO-60 정직-겸손성(HEXACO-60 Honesty-Humility; HH)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직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HEXACO Personality Inventory; HEXACO-PI; 유태용, 이기범, Ashton, 2004)의 단축형인 HEXACO-60 (Ashton & Lee, 2009)의 정직-겸손성(HH) 문항을 활용하였다. HECACO-60에서 정직-겸손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는 Ashton & Lee(2009)에서 .79, 본 연구에서 .67로 나타났다.

Short Dark Tetrad(SD4)

SD4는 4가지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로(Paulhus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권혁준 등(2023)이 국내에 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SD4는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사디즘의 4개 요인을 측정한다.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고 속이려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며, 나르시시즘은 과장된 자아상, 우월감, 자기 고양과 관련을 가지는 성격 특성이다. 사이코패시는 낮은 공감능력과 죄의식, 높은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사디즘은 타인의 고통에 쾌감을 가지는 가학적인 성격 특성을 뜻한다. SD4는 각 요인마다 7문항씩 총 28개 문항을 가지며, '중요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타고난 리더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된다.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함(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는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사디즘 순으로 Paulhus 등(2021)에서 각각 .83, .78, .82, .82였으며, 권혁준 등(2023)에서 .68, .81, .80, .83, 본 연구에서는 .86, .90, .87, .85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연구 1을 통해 구성된 14개 문항의 한국판 BSF에 대해 문항 수준의 심층 분석과 전체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 및 수렴타당도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각 문항이 서열척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잠재 특성이 다른 응답자를 잘 구별해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분문항반응이론(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을 이용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각 문항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여러 모수(parameter)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문항 변별도는 특정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심각도는 특정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의 수준, 즉 문항의 심리적 난이도를 의미하며, 경계모수는 척도의 각 평정 점수를 구분하는 경계선의 위치를 나타낸다(성태제, 2009; Baker, 2001). 분석 모델로는 5점 리커트 척도에 적합한 일반화부분점수모형(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GPCM)을 적용하였으며, '설득형 헛소리'와 '회피형 헛소리' 요인별로 독립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문항 변별도와 경계모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Muraki, 1992; 서동기 등, 2019). 구체적으로 문항 변별도를 통해서는 각 문항이 응답자의 잠재 특성을 잘 구분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경계모수 파라미터가 순서대로 배열되는지를 통해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가 서열척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문항 변별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Baker(2001)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Baker(2001)의 기준은 매우 높음(1.70 이상), 높음(1.35이상 1.70미만), 중간(0.65이상 1.35미만), 낮음(0.35이상 0.65미만), 매우 낮음(0.35미만)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2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연구 1과 동일하게 RMSEA, CFI, TLI, SRMR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적합도 판단 기준 또한 Vandenberg와 Lance(2000)의 권고 기준(RMSEA $\leq$ .08, CFI 및 TLI $\geq$ .90, SRMR $\leq$ .10)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BSF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LiES, OCQ-30, SDS-9, HEXACO-60의 정직성-겸손성(HH), SD4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반응이론 분석은 R 4.4.1의 mirt 패키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8.3을, 상관분석은 SPSS 23.0을 통해 진행하였다.

결 과

일반화부분점수모형

일반화부분점수모형을 통해 연구 1에서 도출된 한국판 BSF 14개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 및 경계모수를 요인별로 추정하였다. 각 문항의 변별도와 경계모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설득형 헛소리 요인의 문항에 대한 변별도는 1.946(3번 문항)에서 3.254(5번 문항)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Baker(2001)가 제시한 매우 높음 기준(1.70)을 상회하는 수치로 다른 응답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문

표 4. BSF 요인별 일반화부분점수모형 문항 모수

번호	변별도	심각도	경계모수 1	경계모수 2	경계모수 3	경계모수 4
설득형 헛소리						
1	2.260	0.897	-1.067	0.213	1.530	2.914
2	2.636	0.842	-0.692	0.263	1.311	2.487
3	1.946	1.108	-0.348	0.810	1.833	2.137
4	2.518	1.035	-0.504	0.505	1.532	2.606
5	3.254	0.900	-0.748	0.299	1.345	2.704
6	1.955	1.217	-0.432	0.689	1.617	2.995
7	2.829	0.719	-0.839	0.202	1.144	2.368
8	2.244	0.915	-0.771	0.221	1.209	3.003
회피형 헛소리						
10	0.998	0.748	-1.832	0.182	1.305	3.339
11	2.056	0.658	-1.344	0.189	1.426	2.364
12	2.361	0.694	-1.069	0.258	1.254	2.336
14	2.470	0.821	-0.900	0.368	1.250	2.568
15	2.361	0.747	-1.187	0.270	1.326	2.583
16	3.424	0.911	-0.828	0.370	1.333	2.767

항에서 경계모수가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5점 응답 범주가 서열척도로서 일관되게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피형 헛소리 요인 문항의 경우에도 변별도가 10번 문항(0.998)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2.00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대부분의 문항이 잠재 특성을 우수하게 변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피형 헛소리의 개념 경계모수 또한 모든 문항에서 오름차순을 보여 서열척도로서 적절히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변별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척도의 전체적인 내용 타당도와 정보량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x^2 = 167.745, RMSEA = .063, CFI = .968,

2) GPCM 분석에서 M2와 같은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M2 통계량은 문항 쌍의 응답빈도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문항 수가 적은 경우 자유도 부족으로 산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Cai & Hansen, 2013). 대신 문항 단위의 적합도 지수(S-X2, RMSEA.S-X2)를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Browne & Cudeck, 1993; Kang & Chen, 2008; Reise et al., 2013).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후 문항별 요인 부하량

번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설득형	회피형
5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거나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을 때	.847	
7	내가 말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리도록 만들고 싶을 때	.842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보게 하고 싶을 때	.819	
4	내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할 때	.808	
8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게 만들거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을 때	.802	
1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778	
6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756	
3	어떤 대화나 토론에 대해 충분히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을 때	.752	
16	내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비판이나 질문을 피하고 싶을 때		.858
14	누군가가 내가 직접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797
15	원하지 않는 대화나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 말해야 할 때		.793
12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784
11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내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일 때		.779
10	솔직한 대답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 때		.618

TLI = .962, SRMR = .040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이 각 해당하는 요인에 .6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요인 간 상관은 .709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한국판 BSF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헛소리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짓말 성향(LiES), 과대주장(OCQ-30), 사회적 바람직성(SDS-9), 정직-겸손성(HEXACO-HH), 그리고 어두운 성격 특성(SD4)과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판 BSF는 전반적으로 관련 변인들과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양호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BSF 점수는 LiES 총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53$, $p < .01$), BSFp와 BSFe도 LiES 총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52$, $p < .01$; $r = .44$, $p < .01$). 세부적으로는 BSFp가 BSFe보다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BSFp와 BSFe는 LiES의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관계적 거짓말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모두 $r = .48$, $p < .01$).

전체 BSF 점수와 OCQ-30의 과대 주장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표 6. BSF 및 수렴타당도 척도 변수의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척도	하위요인	*M*	*SD*	BSF	BSFp	BSFe
1	BSF	총점	2.31	0.71			
2		BSFp(설득형 헛소리)	2.22	0.80	.91**		
3		BSFe(회피형 헛소리)	2.40	0.76	.90**	.65**	
4	LiES	총점	38.14	16.10	.53**	.52**	.44**
5		반사회적 거짓말	15.61	8.94	.41**	.44**	.30**
6		관계적 거짓말	22.52	9.16	.53**	.48**	.48**
7	OCQ-30	과대 주장 점수	-0.26	0.25	.05	.10	-.01
8		오반응 횟수	3.28	2.23	.11	.13*	.06
9	SDS-9	총점	30.01	3.99	-.25**	-.25**	-.20**
10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15.65	2.84	.03	.04	.01
11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14.35	2.69	-.41**	-.41**	-.32**
12	HEXACO-60	정직-겸손성	34.17	5.20	-.36**	-.38**	-.28**
13	SD4	총점	63.15	17.56	.61**	.60**	.51**
14		마키아벨리즘	18.47	5.46	.55**	.52**	.48**
15		나르시시즘	16.85	5.72	.42**	.44**	.31**
16		사이코패시	14.11	5.27	.53**	.54**	.43**
17		사디즘	13.71	5.31	.48**	.45**	.43**

주. BSF = Bullshitting Frequency Scale; BSFp = 설득형 헛소리 평균 점수; BSFe = 회피형 헛소리 평균 점수; LiES = Lying in Everyday Situations scale; OCQ = Overclaiming Questionnaire; 과대 주장 점수 = 오반응 비율 - 정반응 비율; SDS-9 = Social Desirability Scale-9; *p < .05, **p < .01.

다(r = .05, p = .37). 이는 BSFp와 BSFe에서도 동일하였다. BSFp와 오반응 횟수 사이에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13, p < .05). 전체 BSF 점수도 오반응 횟수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r = .11, p = .058).

전체 BSF 점수와 BSFp, BSFe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SDS-9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나(r = -.25, p < .01; r = -.25, p < .01; r = -.20, p < .01), 그 하위요인인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반대로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1, p < .01; r = -.41, p < .01; r = -.32, p < .01). HEXACO의 정직-겸손성과의 상관분석에서도 전체 BSF 점수와 BSFp, BSFe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r = -.36, p < .01; r = -.38, p < .01; r = -.28, p < .01).

전체 BSF 점수와 BSFp, BSFe는 SD4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 BSF 점수와 SD4 총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61, p < .01), 마키아벨리즘(r = .55, p < .01), 사이코패시(r = .53, p < .01), 사디즘(r = .48, p < .01), 나르시시즘(r = .42, p < .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BSFp는 사이코패시(r = .54, p < .01), 마키아벨리즘(r = .52, p < .01), 사디즘(r = .45, p < .01), 나르시시즘(r = .44, p < .01)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BSFe는 마키아벨리즘(r = .48, p < .01), 사이코패시(r = .43, p < .01), 사디즘(r = .43, p < .01), 나르시시즘(r = .31, p < .01)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한국판 BSF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문항 수준의 분석과 척도의 구조적, 외적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분문항 반응이론의 일반화부분점수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재검증하였고 헛소리와 관련성을 가지는 여러 개념과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일반화부분점수모형을 통해 개별 문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판 BSF의 14개 문항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변별도와 안정적인 서열적 특성을 보였다. 10번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별도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 1에서 타인 중심적 동기를 묻는 문항들이 한국 표본에서 비교적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타인 중심적인 동기에 의한 회피형 헛소리는 다른 문항들이 측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 비해 한국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특성일 수 있다(Park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문항은 회피형 헛소리 요인의 문항 중 타인을 고려하는 측면을 측정하는 유일한 문항으로서 헛소리 척도의 내용적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최종 문항 구성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본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1에서 도출된 구조가 안정적임을 재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이 각 요인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 1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BSF의 2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한국판 BSF는 관련 척도와의 상관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절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헛소리 측정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BSF 점수와 설득형 및 회피형 헛소리는 일상 속 거짓말 사용 경향을 측정하는 LiES와 유의미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설득형 헛소리가 회피형 헛소리보다 LiES 총점 및 LiES의 반사회적 거짓말과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헛소리와 거짓말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설득형 헛소리의 빈도가 높은 사람이 반사회적 거짓말을 할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Littrell et al., 2021a). 설득형 헛소리는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더 과장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설득형 헛소리의 조작적인 특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복수심으로 거짓말을 하는 성향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Blötner와 Bergold(2023)에서 조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특성이 설득형 헛소리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작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설득형 헛소리를 더 자주 사용하며, 이러한 동기는 상황에 따라 반사회적 거짓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다르게 회피형 헛소리도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Littrell et al., 2021a). 회피형 헛소리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를 가진다. 이를 볼 때 회피형 헛소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동기를 가진 반사회적 거짓말과 관련이 없는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의 BSF 요인분석에서 회피형 헛소리의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타인 중심적인 동기보다 강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Park et al., 2018).

전체 BSF 점수와 설득형 헛소리, 회피형 헛소리는 OCQ-30의 과대 주장 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대 주장 점수가 지식수준이나 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과대 주장 점수는 실존하지 않는 항목을 아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에서 실존하는 항목에 대해 아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을 뺀 값을 사용한다(Paulhus et al., 2003). 따라서 헛소리 경향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지식수준이 과대 주장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인 및 역사적 사건, 20세기 유명인, 유명 작가 및 캐릭터와 같은 OCQ의 영역 중 비교적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자연과학과 책과 시 영역을 선택하였으나 지식수준과 문화적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개인의 지식수준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오반응 횟수의 경우, 이론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설득형 헛소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체 BSF 점수도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오반응 횟수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 연구와 같이 과대 주장 점수가 헛소리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rell et al., 2021a). 회피형 헛소리는 과대 주장 점수 및 오반응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회피형 헛소리의 경우 자기 과시보다는 사회적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arson, 2016).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에도 전체 BSF 점수, 설득형 및 회피형 헛소리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헛소리가 사회적인 인상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Kienzler, Västfjäll, & Tinghög, 2022; Littrell et al., 2021a; Mears, 2002).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 요인에서는 전체 BSF 점수, 설득형 및 회피형 헛소리 모두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에 따르면,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은 사회적 및 도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은 수준을 측정하며,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수준을 측정한다. 헛소리 행위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된다(Christensen et al., 2019; Spicer, 2013; Petrocelli, 2018). 따라서 헛소리 성향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하는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BIDR(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Paulhus, 1991)을 이용해 측정한 사회적 바람직성도 전체 BSF 점수와 설득형 및 회피형 헛소리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rell et al., 2021a).

반면,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은 더 좋은 사회적 인상을 보이기를 원하는 특성으로 헛소리, 특히 설득형 헛소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헛소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사회적 인상을 추구하는 특성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높은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을 가진 사람은 헛소리를 통해 바람직성을 관리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진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Stöber(2001)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nnelly와 Chang(2016)은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바람직성이 단순 응답 방식을 넘어 실제 성격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헛소리가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헛소리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맥락에 따라 헛소리와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헛소리 수용 환경의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Alvesson & Karreman, 2011; Mears, 2002; Petrocelli, 2018).

본 연구에서 BSF은 정직-겸손성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득형 헛소리가 회피형 헛소리보다 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헛소리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담화 방식임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Frankfurt, 2005; Littrell et al., 2021a; Mears, 2002). 또한, 설득형 헛소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역량을 과장하는 동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진실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정직-겸손성과 더욱 강하게 상충된다.

BSF는 모든 어두운 성격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득형 헛소리에서 어두운 성격들과의 더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Blötner과 Bergold(202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헛소리보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헛소리가 해악적인 성격들과 더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두운 성격 중 마키아벨리즘이 전체 BSF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조종하거나 기만하는 특성을 가진 성격이다(Christie & Geis, 1970; 권혁준, 이유경, 서종한, 2023).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마키아벨리즘의 성격 특성이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거나 과시할 목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행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전체 BSF 점수와 설득형 및 회피형 헛소리는 나르시시즘과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르시시즘의 경우, 강한 자기애와 특권의식으로 인해 인상 관리 및 자기 과시를 위해 과장하거나 꾸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이시은, 서종한, 2025; de Vries, Zettler, & Hilbig, 2014; Morf & Rhodewalt, 2001).

가짜뉴스나 정보 조작과 같이 헛소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개념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헛소리 개념을 도입하

고 국내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를 측정하는 BSF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 과정에서 기존 척도를 국내 문화적 특성에 따라 검증하고, 1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2요인 구조를 도출해 헛소리의 문화적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허위반응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거짓말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 헛소리가 실제로 거짓말과 구분되는 개념임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한국판 BSF는 한국의 헛소리 특성을 반영한 척도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헛소리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리더십 및 조직 내부 역학을 이해하고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리더나 조직원의 헛소리 성향은 조직 내 의사소통의 질과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안전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가진 팀원은 조직 내 문제 해결 과정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Fallatah, 2023; McCarthy et al., 2020). 한국판 BSF를 사용한다면 리더십 스타일이나 조직 구성원의 의사소통 방식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판 BSF는 실질적인 성과보다 인상관리나 그럴듯한 보고가 더 보상받는, 소위 헛소리가 만연한 조직 문화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Christensen et al., 2019; Spicer, 2020). 마지막으로 인사 선발 장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헛소리 성향은 정직-겸손성과 강한 부적 상관을,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어두운 성격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SF 척도가 기존의 성실성이나 정직성 검사를 보완하여, 조직 내 신뢰를 저해하고 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지원자를 식별하는 선발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한국판 BSF는 자기보고식으로 헛소리 성향에 대한 특성을 측정한다. 그러나 헛소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설문 참가자가 자신의 행동을 과소보고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보고식으로는 헛소리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BSF는 일상생활 속 거짓말 척도나 과대 주장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헛소리와 관련된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판 BSF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 일부 척도는 국내에서 타당화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짓말 또는 과대 주장과 같이 헛소리와 관련된 성향을 측정하는 구조화된 도구가 부재하여, BSF 개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일부를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성향을 측정한 LiES와 과대 주장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OCQ-30의 문항을 이중언어 전문가를 통해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향후 국내에서 타당화된 척도가 개발된다면 해당 척도와의 결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헛소리의 구성개념이 한국 문화권에서 어떤 요인 구조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나,

문항 구성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두 척도 간의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개념적 등가성(construct equivalence; Matsumoto & Van de Vijver, 2010; Van de Vijver & Leung, 2021)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형태 동일성(configural), 측정 동일성(metric), 절편 동일성(scalar) 등 단계적 동일성 검증(Meredith, 1993; Vandenberg & Lance, 2000)을 통해 한국판 BSF와 원척도의 잠재구조가 통계적으로 동일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민성, 서동기, 서종한 (2024). 한국형 사이코패시: 국내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타당화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1), 55-79.

강현경, 박영신 (2014).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 성별,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1-18.

국립국어원 (nd). 헛소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06404&searchKeywordTo=3에서 2025년 10월 17일에 검색함.

권혁준, 이유경, 서종한 (2023). 한국판 SD4 (Short Dark Tetrad) 요인구조 탐색 및 타당화 연구: ESEM과 Rasch 평정척도모형을 활용하여. 경찰학연구, 23(1), 191-230. https://doi.org/10.22816/polsci.2023.23.1.008

문용린, 이지혜, 김민강 (2008). 한국인의 거짓말 유형과 정당화 양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5(3), 191-205.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https://doi.org/10.15703/kjc.16.6.201512.177

서동기, 이순묵, 김종남, 최승원, 채정민, 정선호, 조성경, 김명기, Chad Ebesutani (2019). 단축형 심리검사 개발의 측정학적 방법과 타당화: 한국형 역기능우울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1), 75-102.

성태제 (2009). 문항반응이론: 개념 및 적용. 학지사.

유태용, 이기범, Michael C. Ashton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이시은, 서종한 (2025). 성격 5요인 기반 나르시시즘 척도 축약형(Five Factor Narcissism Inventory-Short Form; FFNI-SF) 타당화. 한국범죄심리연구, 21(1), 179-208.

조은경 (2002).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33-65.

Ashton, M. C., & Lee, K. (2009). The HEXACO-60: a short measure of th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4), 340-345. https://doi.org/10.1080/00223890902935878

Asparouhov, T., & Muthén, B.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3), 397-438.

Baker, F. B. (2001). *The Basics of Item Response Theory*. ERIC Clearinghouse on Assessment and

Evaluation, College Park, MD.

Barnes, J. A. (1994). *A pack of lies: Towards a sociology of ly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ötner, C., & Bergold, S. (2022). It is double pleasure to deceive the deceiver: Machiavellianism is associated with producing but not necessarily with falling for bullshi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2*(1), 467-485. https://doi.org/10.1111/bjso.12559

Brandolini, A.. *The bullshit asimmetry* [Twitter moment]. (2013, January 11). Retrieved from https://twitter.com/ziobrando/status/289635060758507521 (@ziobrando).

Carson, T. L. (2016). Frankfurt and Cohen on bullshit, bullshiting, deception, lying, and concern with the truth of what one says. *Pragmatics & Cognition, 23*(1), 53-67. https://doi.org/10.1075/pc.23.1.03car

Christensen, L. T., Kärreman, D., & Rasche, A. (2019). Bullshit and Organization Studies. *Organization Studies, 40*(10), 1587-1600. https://doi.org/10.1177/0170840618820072

Christie, R., & Geis, F. L. (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New York: Academic Press.

Cohen, G. A. (2012). *Complete bullshit*. In M. Otsuka(Ed.), Finding oneself in the other(pp.94-114).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j.cttq956b.

Connelly, B. S., & Chang, L. (2016). A meta analytic multitrait multirater separation of substance and style in social desirability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84*(3), 319-334.

de Vries, R. E., Zettler, I., & Hilbig, B. E. (2014). Rethinking Trait Conceptions of Social Desirability Scales: Impression Management as an Expression of Honesty-Humility. *Assessment, 21*(3), 286-299. https://doi.org/10.1177/1073191113504619

Eckhert, H. (2023). *Narcissism Predicts Higher Bullshit Transmission and Bullshit Receptivity {Undergraduate thesis*, Wittenberg University]. OhioLINK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Center. http://rave.ohiolink.edu/etdc/view?acc_num=wuhonors1690970149459036

Fallatah, M. (2023). This Is Bullshi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Bullshitting and Employee Job Satisfaction. *Social Sciences, 12(*11), 636. https://doi.org/10.3390/socsci12110636

Ferreira, C., Hannah, D., McCarthy, I., Pitt, L., & Lord Ferguson, S. (2020). This Place Is Full of It: Towards an Organizational Bullshit Percep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125*(1), 448-463. https://doi.org/10.1177/0033294120978162

Frankfurt, H. (1986). *On bullshit*. Raritan Quarterly Review, 6, 81-100

Frankfurt, H. (2005). *On Bullsh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2307/j.ctt7t4wr

Gibbons, A. F. (2024). Bullshit in Politics Pays. *Episteme, 21*(3), 1002-1022. doi:10.1017/epi.2023.3

Gligorić, V., Feddes, A., & Doosje, B. (2022). Political Bullshit Receptivity and its Correlates: A Cross-Country Validation of the Concept.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10*(2), 411-429. https://doi.org/10.5964/jspp.6565

Gorsuch, R.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ardcastle, G. L., & Reisch, G. A. (Eds.). (2011). *Bullshit and philosophy: Guaranteed to get perfect results every time*. Open Court.

Hart, C. L., Jones, J. M., Terrizzi, J. A., & Curtis, D. A. (2019). Development of the lying in everyday situations scal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2*(3), 343-352. https://doi.org/10.5406/amerjpsyc.132.3.0343

Jerrim, J., Parker, P., Shure, N. (2019). *Bullshitters. Who Are They and What Do We Know about Their Lives?* (IZA Discussion Paper 12282).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Bonn, Germany.

Kienzler, M., Västfjäll, D., & Tinghög, G. (2022). Individual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financial bullshit.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Finance, 34*, 100655. https://doi.org/10.1016/j.jbef.2022.100655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Littrell, S. (2024). The Corporate Bullshit Receptivity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and associations with workplace outcomes [Preprint]. *PsyArXiv.* https://doi.org/10.31234/osf.io/gfn85

Littrell, S., Risko, E. F., & Fugelsang, J. A. (2021a). The Bullshitting Frequency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1), 248-270. https://doi.org/10.1111/bjso.12379

Littrell, S., Risko, E. F., & Fugelsang, J. A. (2021b). 'You can't bullshit a bullshitter' (or can you?): Bullshitting frequency predicts receptivity to various types of misleading inform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4), 1484-1505. https://doi.org/10.1111/bjso.12447

Marsh, H. W., Morin, A. J., Parker, P. D., & Kaur, G. (2014).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 integration of the best feature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1), 85-110.

Matsumoto, D., & Van de Vijver, F. J. (Eds.). (2010). *Cross-cultural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arthy, I. P., Hannah, D., Pitt, L. F., & McCarthy, J. M. (2020). Confronting indifference toward truth: Dealing with workplace bullshit. *Business Horizons, 63(*3), 253-263. https://doi.org/10.1016/j.bushor.2020.01.001

Mears, D. P. (2002). The ubiquity, functions, and contexts of bullshitting. *Journal of Mundane Behavior, 3*(2), 233-256.

Meredith, W. (1993). Measurement Invariance, Factor Analysis and Factorial Invariance. *Psychometrika, 58*(4), 525-543. doi:10.1007/BF02294825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https://doi.org/10.1086/226550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204_1

Moshagen, M., Hilbig, B. E., & Zettler, I. (2018). The dark core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125*(5), 656-688. https://doi.org/10.1037/rev0000111

Muraki, E. (1992). A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Application of an EM algorithm.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6,* 159-176.

Park, H. S., Choi, H. J., Oh, J. Y., & Levine, T. R. (2018).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in Lying and Truth-Telling.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7*(5), 562-577. https://doi.org/10.1177/0261927X18760081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 17-5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aulhus, D. 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1).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The Short Dark Tetrad (SD4).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3), 208-222.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602

Paulhus, D. L., Harms, P. D., Bruce, M. N., & Lysy, D. C. (2003). The over-claiming technique: Measuring self-enhancement independent of 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90-904. https://doi.org/10.1037/0022-3514.84.4.890

Paulhus, D. L., & Klaiber, P. (2020). HEXACO, dark personalities, and Brunswik symmetr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4*(4), 541-542.

Paulsen, R. (2013). *Empty labor: Subjectivity and Idleness at work*. [Doctoral Thesis (monograph), Uppsala University]. Uppsala universitet.

Pennycook, G., & Rand, D. G. (2019). Who falls for fake news? The roles of bullshit receptivity, overclaiming, familiarity, and analytic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88*(2), 185-200. https://doi.org/10.1111/jopy.12476

Petrocelli, J. V. (2018). Antecedents of bullshitt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6,* 249-258. https://doi.org/10.1016/j.jesp.2018.03.004

Spicer, A. (2013). Shooting the Shit: The Role of Bullshit in Organisations. *M@n@gement,. 16*(5), 653-666. https://doi.org/10.3917/mana.165.0653.

Spicer, A. (2020). Playing the Bullshit Game: How Empty and Misleading Communication Takes Over Organizations. *Organization Theory, 1*(2). https://doi.org/10.1177/2631787720929704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 222-232. https://doi.org/10.1027//1015-5759.17.3.222

Van de Vijver, F. J., & Leung, K. (2021). *Methods and data analysis for cross-cultural research* (Vol. 1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Turpin, M. H., Kara-Yakoubian, M., Walker, A.

C., Walker, H. E. K., Fugelsang, J. A., & Stolz, J. A. (2021). Bullshit Ability as an Honest Signal of Intelligence. *Evolutionary Psychology, 19*(2). https://doi.org/10.1177/14747049211000317 (Original work published 2021)

Watson, D. (2004). Watson's dictionary of weasel words. Sydney: Random House.

Zbaracki, M. J. (1998). The Rhetoric and Reality of Total Quality Manage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3*(3), 602-636. https://doi.org/10.2307/2393677

투고일자: 2025-08-15
수정일자: 2025-09-24
게재일자: 2025-10-22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25. Vol. 38, No. 4, 491-517
https://doi.org/10.24230/kjiop.v38i4.491-517

A Validation Study on the Korean Version of the Bullshitting Frequency Scale (BSF): Construct and Convergent Validity

Minseong Kang **Jonghan Sea**

Yeungnam University

Bullshitting refers to communication that pays little attention to truthfulness or clarity and often serves to exaggerate one's competence or avoid negative evaluation. Such behavior appears across various social contexts-from everyday interactions to politics, industry, and organizations-undermining social trust and hindering effective problem-solving.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Bullshitting Frequency Scale (BSF) for use in Korea by examining its construct and convergent validity. In Study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 were conducted with a sample of 300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to identif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SF. Results supported a two-factor structure-persuasive bullshitting and evasive bullshitting-with 14 items, including some that were excluded in the original scale development. In Study 2, a new sample of 300 adults was recruited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individual items using 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 (IRT), confirm the factor structure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assess convergent validity with related constructs. The two-factor model was supported again, with individual items demonstrating high discrimination and stable ordinal properties. Furthermore, the BSF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lying tendency, overclaiming, social desirability, honesty-humility, and dark personality traits. This study valida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BSF, explored cultural differences in bullshitting, and laid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bullshitting in Korean contexts.

Key words : Bullshitting, BSF, ESEM, Item Response Theory, GPCM

부록

BSF 척도 문항 정보

번호	문항 내용
1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보게 하고 싶을 때*
3	어떤 대화나 토론에 대해 충분히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을 때*
4	내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할 때*
5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거나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을 때*
6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7	내가 말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리도록 만들고 싶을 때*
8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게 만들거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을 때*
9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때
10	솔직한 대답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 때*
11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내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일 때*
12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13	나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14	누군가가 내가 직접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15	원하지 않는 대화나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 말해야 할 때*
16	내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비판이나 질문을 피하고 싶을 때*
17	내가 말하는 내용을 실제로 아는지와는 상관없이 말할 때
18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19	내 의견을 꼭 말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낄 때
20	어리석게 보이지 않고 싶을 때
21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을 때

주. *한국판 BSF 문항